

##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신나리, 임지준,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Intimacy: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Nari Shin, Jijun Lim, Sung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was explorative study to exam whether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were with classificaton of emotional type(positive, negative) and gender(male, female). Data of 270 students were analysed wi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In case of male,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moderating effect between social anxiety and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though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not. Second, In case of female,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moderating effect between social anxiety and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though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not. The meaning of results, implications of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researche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Social anxiety,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difference.

## I. 서론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초기성인기의 성공적인 연인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고 더 나은 생리학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질과 안녕감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두

리, 김교현, 2006; Schneiderman, Zagoory-Sharon, Leckman, & Feldman, 2012). 더 나아가 초기성인기의 성공적인 연인관계는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 결혼 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전반에 걸친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다(장휘숙, 2007; Gottman & Levenson, 2000; Russel & Wells, 1994). 이와 같은 연인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파트너와의 친밀감으로, 원만하고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연인관계 친밀감은 자신의 연인과 서로 가까움의 느낌과 상호간 연결로 정의되며, 자기공개, 상호신뢰, 공감 및 수용을 포함하는 커플관계 과정에서 나타난다(Julien, Chartrand, Simard, Bouthillier, & Babin, 2003, Moss & Schwebel, 1993; Peplau, 2001, Prager, 1995).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연인관계 친밀감이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연인관계를 갖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Goodman, 1999; Greeff & Malherbe, 2001; Patrick, Sells, Giordano, & Tollerud, 2007). 반대로 친밀감이 부족할 경우 우울증과 정서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낮은 관계만족과 관계결별을 나타내었다(Kingsbury & Minda, 1988; Waring, 1988).

연인관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개방, 의사소통, 원가족 분화, 애착, 사회불안 등이 연구되어 왔다(유춘자, 박경, 2013; Afram & Kashdan, 2015; Sparrevohn & Rapee, 2009; Porter & Chambless, 2014).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 중 사회불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불안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혹은 수행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장애로 나타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의 높은 수준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사회불안이 높은 개인은 결혼할 가능성이 적고, 가까운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적으며, 작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Alden & Taylor, 2004, Hudson & Rapee, 2009, Teo et al., 2013; Wittchen, 2000).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자신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 낮은 친밀감을 보인다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강은숙, 박정희, 2005; 박혜련, 손은정, 2012; Porter & Chambless, 2014; Sparrevohn & Rapee, 2009; Wenzel, 2002). 이 연구들에서 사회불안과 친밀감의 두 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을 낮추는 유력한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가 안정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연구에서 자기노출을 최대화하는 사회적 장면과 자기노출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장면 모두에서 사회불안 수준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Kashdan, Volkmann, Breen & Han, 2007).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에서 작

용하는 조절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이 발달하는 과정을 Reis와 Shaver(1988)은 친밀감 대인과정모델(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친밀감의 대인과정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파트너에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 또는 행동을 자기개방이라고 하며,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친밀감은 증가된다.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파트너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된다. Reis와 Shaver(1988)는 자기를 개방할 때, 파트너의 반응을 이해와 수용과 돌봄으로 받아들일수록 친밀감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이 모델에 따라 진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개방이 많을수록 친밀감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는데(윤미혜, 신희천, 2009; 이미영, 조현, 권정혜, 2009; 최지영, 최연실, 2010;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Mitchell, Castellani, Herrington, Joseph, Doss, & Synder, 2008), 자기개방 중에서 사실에 대해 개방하는 것보다 감정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친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Fitzpatrick, 1987;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에 대해 개방하는 것에 상응하는 구성개념으로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을 주목하고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정서표현성은 비교적 일관적인 개인적 특성(King & Emmons, 1990; Kring, Smith, & Neale, 1994)으로,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욕구 및 경험한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한편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과정모델에서는 자기개방과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적 지각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동기가 연인관계 친밀감을 형성해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내적 동기에는 파트너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관계에 대한 접근동기도 있고, 파트너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통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관계에 대한 회피동기도 있다(Reis & Shaver, 1988). 접근동기는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에게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개방하도록 하는 반면, 회피동기는 내적 경험과 감정을 파트너에게 개방하는 것을 방해한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거부와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의 회피동기가 높다(Davila & Beck, 2002). 이로 인해 연인관계에서도 파트너에게 거부당함과 버려짐을 두려워해서 자기개방을 적게 하게 되고, 특별히 감정개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uming & Rapee, 2010; Sparrevonn & Rapee, 2009). Reis와 Shaver(1988)의 모델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서의 낮은 수준의 감정개방은 친밀감을 감소시키고, 높은 수준의 감정개방은 친밀감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이 파트너에게 순진하게 쏟아내는 사회적 두려움과 자기의심, 반추적 사고와 걱정 등의 높은 수준의 감정개방이 파트너에게 일종의 짐이 될 수 있다(Wenzel, Graff-Dolezal, Macho, & Brendle, 2006). 이에 따라 파트너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 감염을 경험할 수 있고, 기

뽀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어 친밀감이 감소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Kashdan, Volkman, Breen, & Han, 2007). 이러한 예측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정서표현성이 오히려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감정개방 또는 정서표현성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정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감정의 개방은 일관되게 연인관계 만족도와 친밀감을 높였다(이미영 등, 2009; 조은정, 이기학, 2002). 그러나 부정적 감정의 개방은 이성관계 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고(윤미혜, 신희천, 2009; Davidson, Balswick, & Halverson, 1983), 연인관계 친밀감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이미영 등, 2009; 조은정, 이기학, 2002).

또한 사회불안과 친밀감의 관계, 사회불안과 감정개방 또는 정서표현성의 관계에서 성차가 보고되었다.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을 때 남자대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여자대학생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강은숙, 박정희, 2005). Cuming과 Rapee(2010)에서, 여자의 경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연인관계에서 자기개방과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과 감정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orter와 Chambless(2014)에서도 여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은 낮은 수준보다 연인관계에서 덜 자기개방을 하였고 만족이 낮았는데, 남자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parrevonn과 Rapee(2009)에서는 사회불안과 자기개방 및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술한 연구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초기 성인기 연인관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긍정 부정 정서유형과 성차에 주목하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정서표현성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이때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 IRB의 승인을 얻은 설문지를 임의표집 방식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중 현재 연애중인 응답자 270명(남 131명, 여 139명; 1학년 94명, 2학년 74명, 3학년 50명, 4학년 49명, 대학원 4명, 기타 12명; 남자 평균연령 23.23세, 여자 평균연령 21.39세; 평균 교제기간 2.90년)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척도이며 대인관계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성 혹은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불편감으로 정의된다. 각 문항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불안반응을 기술하는 자기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되며, 문항 예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역하고 타당화과정을 거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 정서표현성 척도(Berke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

Gross와 John(1995)이 개발한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7점 리커트 형식의 1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며 정적표현성, 부적표현성 및 충동강도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로는 “내가 행복할 때면 감정이 드러난다.”, “나는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았다.” 등이 있다. 전체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정적 표현성은 .80, 부적 표현성은 .71, 충동강도는 .74이었다.

### • 연인관계 친밀감 척도(Personal Assessment about Intimacy in Relationships: PAIR)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와 Olson (1981)이 개발한 연인관계의 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형식의 36문항짜리 질문지로, 정서적, 사회적, 성적, 지적, 오락적, 인습적 친밀감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로는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한다” 등이 있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 한국판 CES-D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olf(1977)가 개발한 CES-D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만든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형식의 2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문항 예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등이 있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를 산출하였고, SPSS Macro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 III. 분석 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차를 고려하여 각각 남녀로 나누어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인관계 친밀감은 사회불안(남  $r = -.282, p < .01$ , 여  $r = -.219, p < .01$ ), 우울(남  $r = -.396, p < .01$ , 여  $r = -.307,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적 정서표현성(남  $r = .362, p < .01$ , 여  $r = .312,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은 정적 정서표현성(남  $r = -.250, p < .01$ , 여  $r = -.313,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보였고, 우울(남  $r = .396, p < .01$ , 여  $r = .307, p < .01$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적 정서표현성은 정서표현성(남  $r = .680, p < .01$ , 여  $r = .693, p < .01$ ), 부적정서표현성(남  $r = .241, p < .01$ , 여  $r = .232, p < .01$ ), 충동강도(남  $r = .439, p < .01$ , 여  $r = .438, p < .01$ ), 지각된 사회적지지(남  $r = .183, p < .05$ , 여  $r = .308,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 정서표현성은 정서표현성(남  $r = ., p < .01$ , 여  $r = .693, p < .01$ ), 충동강도(남  $r = .439, p < .01$ , 여  $r = .438,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전체변인들의 상호상관 관계

( $N = 270$ )

		1	2	3	4	5	6	7	8
1.	사회불안	-	-.024	-.250**	.046	.095	-.282**	.396**	.072
2.	정서표현성	-.117	-	.680**	.753**	.841**	.138	.009	-.019
3.	정적 정서표현성	-.313**	.693**	-	.241**	.419**	.362**	-.135	-.084
4.	부적 정서표현성	-.013	.755**	.232**	-	.439**	-.052	.013	.087
5.	충동강도	-.022	.849**	.484**	.438**	-	.058	.107	-.057
6.	친밀감	-.219**	.073	.312**	-.081	-.002	-	-.254**	-.046
7.	우울	.307**	-.027	-.192*	.011	.077	-.324**	-	-.142
8.	교제기간	-.159	.021	.047	-.061	.068	.103	.138	-

주: 대각선 위: 남자( $n=131$ ) / 대각선 아래: 여자( $n=139$ )

\*  $p < .05$ , \*\*  $p < .01$

## 2.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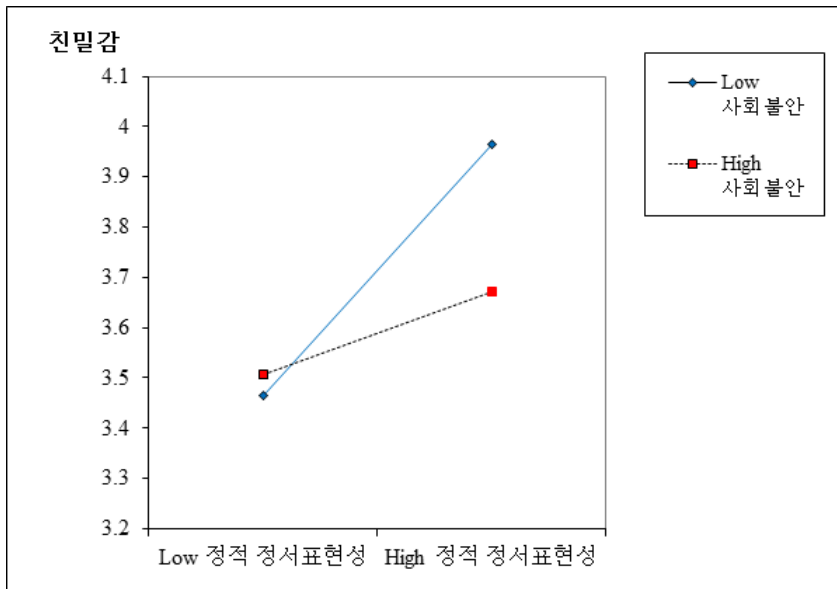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표현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결과는 표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우울과 교제기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불안과 조절변인인 정서표현성의 각 하위요인(정적 정서표현성 또는 부적 정서표현성)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사회불안  $\times$  정적 정서표현성, 사회불안  $\times$  부적 정서표현성)을 투입하였다.

표 2를 보면, 남성인 경우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R^2 = .230, p < .05$ ), 남성의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정적 정서표현성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beta = .304, p < .001$ ). 그러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Delta R^2 = .199, p < .001$ ). 그러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여 그림 1로 나타내었다(Howell, 2002). 그림 1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Macr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 따르면 정적 정서표현성의 +1SD인 집단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85, p < .01$ ). 그러나 정적 정서표현성이 -1SD인 집단의 조절효과는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기울기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인관계 친밀감을 더 많이 느꼈다. 그렇지만 정적 표현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연인관계 친밀감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서표현성이 낮은 조건보다는 높은 조건에서 사회불안 수준의 고저에 따라 연인관계 친밀감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

〈표 2〉 남성의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연인관계 친밀감					
	비표준화 계수		$\beta$	t	$R^2$	$\Delta R^2$
	계수	표준오차				
<b>1단계</b>						
우울	-.282	.097	-.252	-2.917**	.065*	.050*
교제기간	-.004	.027	-.013	-.148		
<b>2단계</b>						
사회불안	-.169	.105	-.144	-1.606	.190***	.164***
정적 정서표현성	.158	.043	.304	3.632***		
<b>3단계</b>						
사회불안 × 정적 정서표현성	-.225	.088	-.207	-2.547*	.230*	.199*
<b>1단계</b>						
우울	-.282	.097	-.252	-2.917	.065*	.050*
교제기간	-.004	.027	-.013	-.148		
<b>2단계</b>						
사회불안	-.253	.108	-.215	-2.338	.106	.078
부적 정서표현성	-.028	.054	-.044	-.515		
<b>3단계</b>						
사회불안 × 부적 정서표현성	-.108	.115	-.087	-.936	.113	.077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남성의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



〈표 3〉 남성의 정적 표현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b	표준오차	t	LLCI(b)	ULCI(b)
정적 정서표현성	-1SD	.04	.13	.30	-.22	.30
	평균	-.17	.10	-1.60	-.37	-.04
	+1SD	-.37	.13	-2.85**	-.63	-.11

주. LLCI=b는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 U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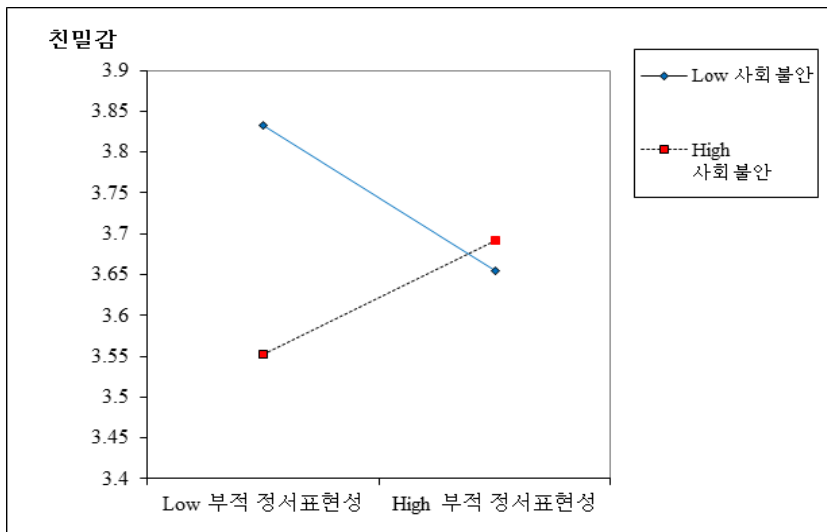
\*  $p < .05$ , \*\*  $p < .01$

표 4를 보면, 여성인 경우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R^2 = .199$ ,  $p < .01$ ), 여성의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정적 정서표현성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beta = .217$ ,  $p < .001$ ). 그러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Delta R^2 = .156$ ,  $p < .05$ ). 유의미하게 나타난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여 그림 2로 나타내었다(Howell, 2002). 그림 2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Macr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를 보면 부적 정서표현성이 +1SD인 집단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적 정서표현성이 -1SD인 집단의 조절효과는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98$ ,  $p < .01$ ). 부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인관계 친밀감이 더 많이 높았다. 그렇지만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사회불안에 따른 연인관계 친밀감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조건보다는 낮은 조건에서 연인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불안의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부정정서 표현이 많을 때는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인관계 친밀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는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보다 사회불안이 낮은 여성의 연인관계 친밀감이 크게 높았다.

〈표 4〉. 여성의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연인관계 친밀감					
	비표준화 계수		$\beta$	t	$R^2$	$\Delta R^2$
	계수	표준오차				
<b>1단계</b>						
우울	-.337	.079	-.344	-4.258	.127***	.114***
교제기간	.047	.025	-.151	1.866		
<b>2단계</b>						
사회불안	-.151	.103	-.127	-1.469	.199**	.175**
정적 정서표현성	.127	.048	.217	2.656***		
<b>3단계</b>						
사회불안 × 정적 정서표현성	-.217	.117	-.146	-1.863	.220	.190
<b>1단계</b>						
우울	-.337	.079	-.344	-4.258***	.127***	.114***
교제기간	.047	.025	.151	1.866		
<b>2단계</b>						
사회불안	-.223	.101	-.187	-2.198*	.162	.137
부적 정서표현성	-.046	.053	-.068	-.864		
<b>3단계</b>						
사회불안 × 부적 정서표현성	.308	.154	.165	1.997*	.186*	.156*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여성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

〈표 5〉 여성의 부적 표현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b	표준오차	t	LLCI(b)	ULCI(b)
부적 정서표현성	-1SD	-.39	.13	-2.98**	-.64	-.13
	평균	-.18	.10	-1.72	-.38	.03
	+1SD	.03	.16	.20	-.29	.35

주. LLCI=b는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 U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

\*  $p < .05$ , \*\*  $p < .01$

## V. 논의

이 연구는 사회불안과 초기 성인기 연인관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정서 표현성의 차별적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이때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차례대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회불안은 연인관계 친밀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회불안은 정적 정서표현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적 정서표현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부적 상관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연인관계 친밀감을 낮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강은숙, 박정희, 2005; 박혜련, 손은정, 2012; Porter & Chambless, 2013; Sparrevohn & Rapee, 2009; Wenzel, 2002). 또한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남자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여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연구(강은숙, 박정희, 2005), 여자의 경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감소하였으나 남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Cuming & Rapee, 2010) 및 Porter와 Chambless(201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자기개방 및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Sparrevohn & Rapee, 2009)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불안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관계에서 성차는 아직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이 비일관적인 결과들에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긍정 부정 정서유형과 남녀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성의 경우, 긍정정서 표현성은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정서 표현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불안이 낮은 남성은 긍정정서 표현이 많으면 긍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보다 연인관계 친밀감이 대폭 상승하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남성은 긍

정서 표현을 많이 해도 연인관계 친밀감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이 적을 경우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서 표현이 많으면 연인관계 친밀감이 높아지는 결과는 이전 선행연구들(Keltner & Kring, 1998; Kennedy-Moore & Watson, 2001)에서 관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로부터 더 나아가 낮은 사회불안은 높은 긍정 정서표현과 상호상승적(synergetic)으로 작용하여 연인관계 친밀감을 대폭 증가시킴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은 높은 수준의 정적 정서 표현을 동반하더라도 연인관계 친밀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에 내재한 특징에 기인할 것으로 추론되는데 향후 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긍정 부정 정서유형과 남녀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여성의 경우, 부정 정서표현성은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정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인관계 친밀감이 더 많이 높았다. 그렇지만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연인관계 친밀감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정정서 표현이 많을 때는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인관계 친밀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는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보다 사회불안이 낮은 여성의 연인관계 친밀감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설계와 방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은 부정정서 표현을 적게 하고 이는 연인관계 친밀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던 Cuming과 Rapee(2010)의 연구와 일정부분 일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차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은 부정정서를 많이 표현함으로써 결국 연인관계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부정정서를 적게 표현함으로써 결국 연인관계 친밀감을 증가시킨다고 나타난 Kashdan, Volfmann, Breen과 Han(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정부분 일치하고 일정부분 상반되는 결과이다.

넷째, 이 연구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성인기 초기 연인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갖는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정서표현성이 가망성있는 조절변인으로 상정되었으나 사회불안이 높을 때보다 사회불안이 낮을 때 유력하게 기능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연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정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의 하나로 향후 보다 가망성 있는 요인을 사용하여 종단적으로 설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숙, 박정희 (2005).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남,녀 대학생의 커플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3(2), 149-169.
- 김정진 (2010). 자존감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방, 지각된 타인지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원두리, 김교현 (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 유춘자, 박경 (2013). 커플관계 친밀감 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5(1), 35-51.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장휘숙, 이영주 (2007).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17-32.
- 조은정, 이기학 (2002). 이성교제 관계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감정적 자기노출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 417-423.
- 최지영, 최연실 (2010).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27-244.
- Afram, A., & Kashdan, T. B. (2015). Coping with rejection concerns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nxiety and risk regulation.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4(3), 151-156.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England: Sage Publications.
- Alden, L. E., & Taylor, C. T. (2004). Interpersonal processes in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857-88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uming, S., & Rapee, R. M. (2010). Social anxiety and self-protective communication style in close relationship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2), 87-96.
- Davila, J., & Beck, J. G. (2002). I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close relationship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ehavior Therapy*, 33(3), 427-446.

- Goodman, C. (1999). Intimacy and autonomy in long term marriag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2(1), 83-97.
- Gordona, E. A., Heimberga, R. G., Montesia, J. L., & Faubera, R. L. (2012). Romantic relationships: Do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benefit?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2), 140-151.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eeff, A. P., & Malherbe, H. L. (2001).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pouse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7(3), 247-257.
- Gross, J. J., & John, O. P. (1995).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Three self-report factors and their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4), 555-568.
- Hudson, J. L., & Rapee, R. M. (2009). Familial and social environments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anxiety disorders. *Oxford handbook of anxiety and Related Disorders*, 14, 173-189.
- Julien, D., Chartrand, E., Simard, M., Bouthillier, D., & Begin, J. (2003). Conflict, social support and relationship quality: An observational study of heterosexual, gay male and lesbian couples'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3), 419-428.
- Kashdan, T. B., Volkman, J. R., Breen, W. E., & Han, S. (2007). Social anxiety and romantic relationships: The costs and benefits of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re context-depend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4), 475-492.
- Kashdan, T. B., & Wenzel, A. (2005). A transactional approach to social anxiety and the genesis of interpersonal closeness: Self, partner, and social context. *Behavior Therapy*, 36(4), 335-346.
- Keltner, D., & Kring, A. M. (1998). Emotion, social function, and psychopat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20-342.
- Kennedy-Moore, E., & Watson, J. C. (2001). How and when does emotional expression help?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87-21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ingsbury, N. M., & Minda, R. B. (1988). An analysis of three expected intimate relationship states: Commitment, maintenance and termin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1-?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Laurenceau, J.,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38-1251.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diary and multi 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Mitchell, A. E., Castellani, A. M., Herrington, R. L., Joseph, J. I., Doss, B. D., & Synder, D. K. (2008). Predictors of intimacy in couples' discussions of relationship injuries: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21-29.
- Montesi, J. L., Conner, B. T., Gordon, E. A., Fauber, R. L., Kim, K. H., & Heimberg, R. G. (2013).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anxiety, intimacy,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in young coupl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1), 81-91
- Moss, B. F., & Schwebel, A. L. (1993). Defining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2*(1), 31-37.
- Patrick, S., Ellis, J. N., Giordano, F. G., & Tollerud, T. R. (2007). Intimacy, differenti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15*(4), 359-367.
- Peplau, L. A. (2001). Rethinking women's sexual orientation: An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focused approach. *Personal Relationships*, *8*(1), 1-19.
- Porter, E. & Chambless, D. L. (2014). Shying away from a good thing: Social anxiety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0*(6), 546-561.
- Prager, K. J. (1995). *The psychology of intimacy*. Guilford series on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20*, 367-389.

- Russel, R. J. H., & Wells, P. A. (1994). Predictors of happiness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3), 313-321.
- Schaefer, M. T., & Olson, D. H. (1981).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1), 47-60.
- Schneiderman, I., Zagoory-Sharon, O., Leckman, J. F., & Feldman, R. (2012). Oxytocin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romantic attachment: Relations to couples' interactive reciprocity. *Psychoneuroendocrinology, 37*(8), 1277-1285.
- Sparrevohn, R. M., & Rapee, R. M. (2009). Self-disclosur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imacy within romantic relationships of people with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12), 1074-1078.
- Teo, A. R. (2013). Social isolation associated with depression: A case report of hikikomori.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9*(4), 339-341.
- Wenzel, A. (2002). Characteristics of close relationships in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 A preliminary comparison with nonanxious individuals. In J. H. Harvey & A. Wenzel(Eds.). *A Clinician`s Guide to Maintaining and Enhancing Close Relationship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s Associates Publishers.
- Wittchen, H. U., Fuetsch, M., Sonntag, H., M ller, N., & Liebowitz, M. (2000).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pure and comorbid social phobia: Findings from a controlled study. *European Psychiatry, 15*(1), 46-58.
- Wood, G. J., Barnes, S. M., & Waring, E. M. (1988). The criterion validity of the warning intimacy questionnaire in a psychiatric inpatient sampl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4*(1), 63-73.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정서유형과 성차에 주목하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정서표현성이 다른 양상의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 이때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연애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정서표현성, 연인관계 친밀감 설문지를 조사하여 얻은 270명(남 131, 여 139)의 자료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는 긍정 또는 부정 정서에 따라,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성의 경우 긍정정서 표현성은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정서 표현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불안이 낮은 남성은 긍정정서 표현이 많으면 긍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보다 연인관계 친밀감이 대폭 상승하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남성은 긍정정서 표현을 많이 해도 연인관계 친밀감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여성의 경우 부정정서 표현성은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밀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정서 표현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정정서 표현이 많을 때는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인관계 친밀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는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보다 사회불안이 낮은 여성의 연인관계 친밀감이 크게 높았다. 이 결과에 대한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에 제시되었다.

**주요어** : 연인관계 친밀감, 사회불안, 정서표현성, 성차

